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8년 11월 3일 기사입니다.

## “한인 네트워크 활용 중소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



### <b>강원TP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수출상담회</b>

도내 중소기업들이 호주, 캐나다의 한인 무역인들과 '수출 친구'를 맺었다.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는 2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을 받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호주,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MOU 체결과 전략 세미나,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이날 초청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 호주, 캐나다지회 바이어들은 도내 25개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조업체들과 수출 상담을 했다. 이 가운데 강릉의 커피 제조업체인 로스팅컴퍼니로움, 식품제조업체인 하슬라에프엔비, 세라믹연도기 제조업체인 인피노 등 8개 기업이 997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장기적인 진출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세미나 발표도 진행됐다. 임혜숙 세계한인무역협회 시드니지회장은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이 강원도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강원도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들의 호주, 시드니 진출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TP는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현재 13개국, 19개소에 한인 무역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에 성공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성인 강원TP 원장은 “현지 여건을 잘 아는 한인 무역인들과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 간 '친구 맺기'를 이어가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